



이순신을 생각한다



노운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고대 중국의 은(殷)나라 고종(高宗)은 부열(傅說)이라는 어진 재상을 얻어 국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는 기록이 서경(書經)의 열명(說命)편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 열명 편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글이 적혀있다.

이순신은 1591년 2월 초에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어 현지로 급파되었다. 전라좌수영에는 5개 포구가 중요한 수군의 근거지였는데 이순신은 부임 즉시 포구를 순찰하며 각종 선박의 보수와 개조를 하는 한편 주력 전투함인 판옥선(板屋船)의 수를 늘리고 특히 거북선을 창제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 수군의 중요한 무기가 대포임을 직감한 이순신은 각종 대포를 정비해 판옥선과 거북선에 장착하고 시험발사를 수차 실시했다. 군적에 빠진 탈영병을 색출해 엄한 중벌로 군율을 다스리는 한편 사부(射夫)는 활쏘기와 발포훈련을, 격군(格軍)은 강한 체력을 위한 운동을 시켰다. 특히 군관들의 정신이 건전해야 싸움

에서 이길 수 있기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는 병법을 강조했다. 이순신은 부임 초부터 이듬해 4월 전쟁이 있기까지 1년 2개월간 만반의 전투준비를 했기에 국가의 존망이란 위기를 맞아 바다를 제패한 구국 충성의 성공이 될 수 있었다. 이순신의 업적과 그와 관련된 역사적 중요한 사례 중에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몇 개 골라 적어본다.

1905년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 연합함대는 대마도(일본 쓰시마섬) 앞바다에서 로제스트벤스키(Rodjestvensky) 제독이 이끄는 세계 1위의 위용을 갖춘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맞아 격전 끝에 대승을 이루고 러일전쟁을 승리로 끝내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을 갖게 되었다.

도고는 이 해전의 승리로 군신(軍神)의 칭호를 받았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 기자와의 면담에



서 도고의 승리는 나폴레옹의 프랑스함대를 격파한 넬슨보다 더 위대한 업적이라고 격찬한 기자에게 도고는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도고의 승리 배후에는 안으로는 천황부터 신민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밖으로는 동맹국인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봉쇄해 발트함대의 흥해 진입을 차단한 결과 발트함대는 지중해를 거쳐 아프리카 남단을 거치는 장거리 항해로 장병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 때문에 일본 해군의 맹렬한 공격에 발트함대는 전멸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7년의 조일전쟁(임진왜란)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홀로 싸웠으며 죽음으로 나라를 구한(無援孤鬪 殺身救國) 영걸이라 하면서 이순신은 도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세출의 위인이라고 했다.

미국 선교사로 한국에서 봉사한 헐버트(H. B. Hulbert)는 1905년 출판된 『한국사(History of Korea)』에서 “한산대첩은 조선의 살라미스 해전이다. 이 해전은 히데요시(秀吉)의 조선 침략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며 명(明) 정벌의 야욕을 깨버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영국 해전사의 전문가인 발라드(G. A. Ballard)는 이순신이 한산에서 펼친 학익진(鶴翼陣) 전법을 “숙련된 함대의 표본”이라고 극찬하면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한 넬슨 제독이 이순신의 전법을 답습했다고 했다. 발라드는 이순신의 공훈을 평가한다면 세계 해전사에서 최고의 인물이지만 그의 명성이 한국 이외에는 별로 알려지

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도 했다.

외국인으로 이순신과 함께 왜적과 싸운 명나라의 수군 도독 진린(陳璘)은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즉시 통제사의 주검이 안치된 임시 영안실로 달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한 조선 수군들에게 장례를 의전 절차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치우도록 했고 이순신의 첫 장자인 아산의 뗏자리 선정에도 명나라의 지관이 참여토록 했다. 진린 도독은 선조에게 보낸 글에서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가 있으며 그의 공로는 중국의 전설에 의화(義和)란 여신이 태양을 목욕시켜 세상을 환하게 했다(補天浴日)는 업적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명 황제에게는 이순신의 공적을 자세히 아뢰어 명의 도독인(都督印)을 비롯한 팔사품(八賜品)을 내리도록 했다.

이순신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는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도 많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필자는 철학자 니체가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 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명언을 상기하게 된다. “한 민족의 특유성은 그 민족이 어떤 위인을 낳았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존경하고 있는가 하는 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전운이 짙어가는 1590년 말, 선조는 훌륭한 무장을 천거하라고 신하들에게 명했다. 우의정 유성룡(柳成龍)은 정읍 현감인 이순신을 품계로 5등급을 뛰어넘는 전라좌수사로 임명토록 강력히 건의할 만큼 이순신과 유성룡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에 부

임한 지 13개월이 지난 1592년(병자년) 3월 5일의 일기에 이순신은 좌의정 유성룡이 『증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이란 명나라의 병서를 자신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면서 이 병서를 읽어본 즉 수전, 육전, 화공 등에 관한 전술이 논의되어 있어 참으로 만고에 특이한 저술이라고 쓰고 있다.

이순신 일기를 보면 유성룡이 7년간의 엄중한 전쟁 시기에 국난을 헤쳐나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에서 애쓰는 이순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서찰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성룡은 전쟁의 끝자락에 동서분당의 와류에 휩쓸려 정적으로부터 가혹한 비난을 받고 조정을 떠나야 했다. 그의 죄목은 왜와의 강화회담에서 조선에 불리한 조약을 맺었다며 이는 남송의 진회(秦檜)가 금(金)과 굴욕적인 화의를 성립시킨 매국노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정적들의 간계에 의한 무고임이 밝혀져 선조는 낙향한 유성룡을 불렀으나 그는 이를 거절했다. 고향(하회)으로 돌아온 유성룡은 1604년 『징비록(懲毖錄)』을 저술했다. 이는 조일전쟁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관료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징비록』은 일본에 유출되어 도쿠가와(德川) 막부는 관료와 지식인들의 필독서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보급했다. 그러나 조선은 유비무환의 정신을 일깨운 유성룡의 교훈을 잊어 조일전쟁이 끝난 지 불과 30년에 병자년의 참화를 입었다.

이순신의 위업을 잊고 있었던 무능한 조선 왕조는 그의 사후 200년이 지난 1793년에 정조대왕이 이순신을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아산의 이순신 묘역을 성역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1795년 정조는 규장각의 문신 윤행임(尹行愷)과 검서(檢書) 유득공(柳得恭)에 명하여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를 편찬하도록 했다. 이 『전서』에는 이순신의 일기를 포함해 조정에 보낸 장계, 각종 시문과 서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순신의 일기는 원래 그해의 간지를 따라 임진일기, 정유일기 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정조는 이를 『난중일기』로 묶어 『전서』에 수록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순신의 죽음이 전사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유언비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번져 나갔다. 이 자살설이 유포된 결정적인 배후에는 숙종 때 이조판서를 역임한 이민서(李敏鉞)가 이순신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면서 이순신이 싸움에서 전사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살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①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갑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 ② 수십 차례의 해상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전쟁영웅인 이순신이 자신의 한 몸을 보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③ 왜의 간첩 요시라(要時羅)의 간계에 의한 거짓 정보를 믿은 어리석은 조정이 왕명을 어겼다는 죄로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해 옥에 가두고 29일 동안 가혹한 문초 끝에 죽이자는 주장이 분분했으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수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는 판중추부사 정탁(鄭琢)의 구명 탄원서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옥에서 풀려나온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순신으로서는 전쟁이 끝나면 동서분당의 시국에서 더구나 파직되어 초야에 묻힌 유성룡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차라리 전장에서 죽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하나의 가설이다. 훌륭한 군인정신을 발휘한 역사의 영웅들은 모두 전장에서 적과 싸워 죽는 것을 명예로 여겼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순신은 적의 유탄을 맞아 쓰러질 때 방패로 앞을 가리라고 말하고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주변의 군사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이순신은 살신구국의 신념을 실현한 영웅이며 따라서 이순신의 자살설은 의미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거북선에 관한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조선 초기의 태종실록에 기술되어 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대대적인 왜구의 침략에 대비한 장갑선(裝甲船)의 일종인 듯하다. 조일전쟁 때 이순신은 나대용(羅大用)에게 명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創制龜船)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의 거북선은 판옥선을 개조해 천정을 덮고 위에는 쇠뿔을 박아 왜적의 접근을 차단한 장갑선이지만 일기 어디에도 철갑이란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일본의 기록(高麗船戰記)에 의하면 한산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대선 58척, 소선 50척이 공격해왔는데 대선 중의 3척은 맹선(盲船)으로 철갑을 한 듯하다고 했다. 맹선

이란 거북선에 대해 일본인들이 부친 별명이다. 거북선의 철갑 진위는 지금도 거론되고 있다.

원균의 패전으로 칠천량 해전에서 격침된 거북선이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아 그 고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박혜일(朴惠一) 교수는 남한산성의 성문이나 승례문이 철갑으로 된 것을 참작하여 철판의 크기와 두께가 2~3mm인 무게를 고려하고 거북선의 체원을 고려해 거북선에 장착된 철판의 총량을 계산한 결과, 그 정도의 무게라면 거북선의 부력으로 능히 배의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다고 평가해 거북선의 철갑선 가능성을 방증했다(한국과학사학회지, 4권 1호, 1979).

끝으로 이순신은 고려 때 중랑장(中郎將)을 지낸 덕수 이씨의 1대조인 이돈수(李敦守)의 12대 후손이다. 덕수 이씨는 정승 7명, 대제학 5명, 청백리 2명을 배출한 명문가이다. 이순신의 조부(百祿)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신진세력을 양성한 조광조와 뜻을 함께한 결과 종종 때 일어난 기묘사화에 참변을 당해 부친(貞)은 관직의 뜻을 버리고 평민으로 지내 가세가 기울었다. 이순신은 2명의 형이 있었으나 일찍 사망해 6명의 조카를 친자식처럼 보살폈다. 부인 방씨는 보성군수 방진(方震)의 딸로 이순의 전사 후에 정경부인의 품계에 올랐다.

이순신은 특히 모친에 대한 사무친 정성이 대단했다. 계사년(1593년) 5월 4일은 모친의 생신일인데 전쟁의 와중이라 헌수의 술잔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한이라는 글이 일기에 적혀

있다. 아들 면(勉)이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하는데…”라고 비통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 어질고 자상한 가장이었다. 노모에 대한 지극한 마음과 자식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의 공적 삶은 매우 근엄하고 엄격했다. 훈련을 게을리한 사병에게는 곤장을, 탈영병은 참수라는 군법을 서슴없이 시행했다. 종이 바치는 미투리를 거절하지 못해 값을 주어 보낸 일화에서 그의 결백한 성격을 볼 수 있고, 백의종군으로 권을 휘하에 머물 때 죄인의 신분으로 전마(戰馬)를 보살피고 대전(大箭)을 다듬으며 무밭을 가꾸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였다.

출전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헌에서 지체된 서

류를 처결하는 등 공무를 보았으며 장수들과 활쏘기 하는 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이순신은 시를 읊고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천부적 성격의 문인이었다. 때로는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듣는 음악 애호가이기도 했다.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시 20수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문학자 조윤제, 시인 이병기, 고시가의 석학 양주동 등 현대 문인들이 이순신을 조선 중기 최고의 문인이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 4월 28일은 성웅 이순신의 탄생 476주년이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위대한 이순신의 업적을 더듬으며 이 짧은 글을 통해 이순신의 삶과 그의 정신적 위대함을 생각해 본다.

KMIF